주인공에 몽땅 맡겨놓고 푹 쉬어라

☞ 19면에서 계속

집!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그냥 대화가 아니라 관하는 거죠. '야, 네가 있다면, 진짜 있다면 지금 이렇게 급한데 너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꼭 방안에 들어앉아 문 걸어 잠그고 벽 쳐다보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방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산 속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산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요? 마음은 자기 몸뚱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건데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요즘은 단계 단계로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붙이고 이러기도 하나 보던데, 그냥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면, 전지전능한 것은 이름을 안 붙여도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하고 모질게 용을 쓰고,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 이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우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할까 저렇게 해야할까 하는 그 생각마저 놓고 지켜본다면, 그저 그렇게만 쥐고 들어간다면 스스로 성품이 발현 될 겁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몇몇 친한 친구들 외에는 저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굳어 버리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나요?

답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고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닥쳐올 때마다 자기 주인공에게 맡기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몸뚱이는 싹과 같고 자기 주인공은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싹은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맡겨야 새롭게 입력이 되어서 바뀌고 밝아질 게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된 하나의 큰마음이니까, 그것이 중심을 꿰어서 바퀴가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너만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의욕이 생기게 할 수 있고 편안케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밝고 긍정적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맡긴다면 차차로 살아나가는 것도 편리해지고 또 가정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부처님 일체 마음이 비 내리듯 해서 나의 마음이 촉촉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인연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비의 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살기에도 여유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니까 혈색이 좋아지고 사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라는 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선장한테 믿고 맡기는 공부를 해 나가세요.

인연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

문 많은 사람들이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인연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살면서 상대가 바깥 인연에 마음이 더 끌려서 자기 인연을 잘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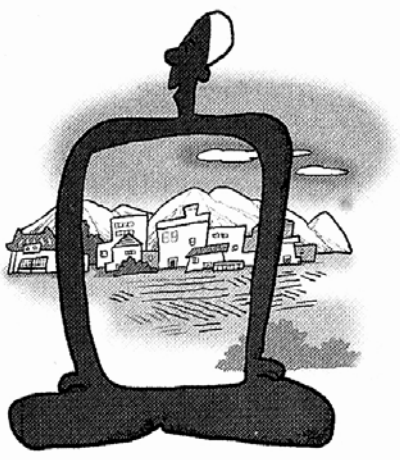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히 믿는다면 한 순간에도 자기발견

지금 여기서 몰록 놔 해결할 때 업식 녹아

답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싫다는데, 금은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나 싫다는데 할 수 없지 그리고 선 놔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당신의 팔자, 운명의 그 차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차원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데로 피해서 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차원을 또 만나게 되요. 자기 그림자는 항상 먼저 가 있죠. 그러니까 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벗어나려면 그냥 헤어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과거나 지금 현실이나 미래를 또 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그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자.' 하고 거기다가 다 몰록 맡겨 놓고 들어간다면, 바로 과거에 살아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재 입력이 되면서 앞서의 입력이 새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얼마 지나지도 않고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정말 헛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새싹들을 잘 이끌어 가면서 잘 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헤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딴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 그래도 딴 자리에 가서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고 간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생이 좀 힘겹더라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세세생생을 다 건지게 되고 나와 남이 다 벗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사람으로서 참다운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어렵더라도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그저 내가 지워놓은 차원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지요

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철 나와서 만나는 것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에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이나 외부의 모든 것이 더불어 같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또 말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바른 행과 어긋난 행

문 진심으로 감사하게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어리석은 중생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 믿고,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두다 맡기는 실천 행으로, 부족하지만 자기 완성의 길로 조금씩이나마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 부족으로, 바른 행인지 잘못된 행인지를 몰라 혼돈할 때가 있기에 여쭙고자 합니다.

중생의 삶에서 '유(有)'의 법을 거스르지 않고 행을 잘할 수 있는 공부에 있어서 바른 행과 어긋난 행의 차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모습은 내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울이라 하셨지만 내 어긋난 행동이 타인을 배려치 않는, 그래서 사회제도나 규칙에 어긋난 행이 될 때 결국 자기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한 걸음 퇴보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주인공에 관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사회통념상 어긋남이 있어도 올바른 공부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가 사는 데 대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떤 게 시대에 맞춰서 옳은가 이런 것을 판단 잘 해서 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호박 넝쿨이 주욱 늘어져 있는데 애호박이 예쁘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 주인공이 그것을 따가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그런 관습과 욕심이, 질투가 그냥 두리뭉수리처럼 있는데, 그게 뭉쳐서 앞을 탁 가리고 거기에서 자꾸 습성이 나오는 것을 대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래서 왜 그걸 따느냐고 하니깐 주인공이 그렇게 따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될 노릇입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관습, 습성, 욕심, 악의, 그러한 것이 그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녹이려면, 나가서 춤을 춰라 하더라도 싱긋이 웃고, 즉 말하자면 '아,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거기다 되놓고 싱긋이 웃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호박을 따 가지고 가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가져 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럭하면 안되잖어?' 하고서 거기다 도로 놓나, 이거 보느라고 그런 건데 그만 속았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장이 자기를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진짜로 공부하려면 좋은 것도 거기다 놓고 언짢은 것도 놓고, 잘못 나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 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확고하게, 속지말고 해야만이 부처님께서 '나는 항복을 다 받았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마구니가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나 좁게 쓰나, 또는 관습으로써 욕심으로써 습관으로써 쓰나 그거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구니가 나오든 신장이 나오든 미녀가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허허! 이게 다 그 속에서 나온 거로구나' 하는 순간 벌써 그렇게 화해서 나왔던 게 다시 원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의식들을 항복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복 받았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한번 삼키고 바다를 다시 토해 줄 때 중생들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1학년도 후기
행정대학원 원생모집안내

1. 모 집 과 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 모 집 학 과 가. 행 정 학 과 : 행정학 전공
나. 복지행정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다. 정 책 학 과 : 정책학 전공
라. 종무행정학과 : 종무행정 전공
3. 모 집 인 원 각 학과 ○○ 명
4. 지 원 자 격 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5. 전 형 방 법 서류전형 및 면접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1. 6. 4(월) -14(목) 09:00-21:00 (토요일은 13:00까지. 단,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대학원 교학과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1. 6.16 (토) 09:20까지 입실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강의동 5층)
8. 합격자 발표 2001. 6. 20(수)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9. 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탈모 상반신 사진(3×4cm) 4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0. 전 형 료 가. 모집요강 및 원서대 : 3,000원 나. 전형료 : 50,000원
11. 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전화 : 02)760-4271, F A 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특 전
가. 공무원, 고직원, 군/경 및 관련기관의 근무자는 수업료의 일부를 감면 함
나.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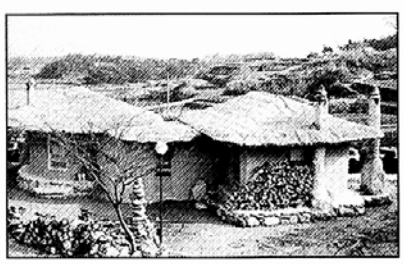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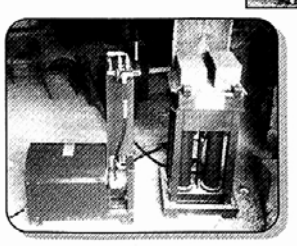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합장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